

2016학년도 수능대비

인터넷수능 B(문과)

현대 소설

변형 문제

 인, 지인국어교육연구소

'알고 있는 것'이 '알게 하는 것'에 이바지해야 한다.

'잘 했다'보다는 '잘 하고 있다'를,

'잘 하고 있다'보다는 '잘 할 수 있다'를 더 중시한다.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으로 문제를 풀거나 '머리'로 해결하기보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한다.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핵심'을 짚어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차이보다는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수많은 관계 그리고 수많은 시공으로 열려 있는 관계가 바로 관계망입니다. 그 관계망을 알아야 합니다.

CONTENTS

e+PLUS 인수B 현대소설

인터넷수능B 현대소설 문제

현대소설 B-1 <엄상섭, '두 파산'>	4
현대소설 B-2 <정한숙, '전황당인보기'>	10
현대소설 B-3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17
현대소설 B-4 <이호철, '닿아지는 살들'>	20
현대소설 B-5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26
현대소설 B-6 <김정한, '산거죽'>	31
현대소설 B-7 <황석영, '삼포 가는 길'>	34
현대소설 B-8 <최일남, '노새 두 마리'>	41
현대소설 B-9 <이문구, '우리 동네 김씨'>	46
현대소설 B-10 <윤흥길, '날개 또는 수갑'>	50
현대소설 B-11 <오정희, '동경'>	56
현대소설 B-12 <이동하, '파편'>	61
현대소설 B-13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70
현대소설 B-14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79
현대소설 B-15 <박범신, '나마스떼'>	85

정답 및 해설	90
---------	----

1994학년도 1차 수능 '삼대', 1999학년도 수능 '삼대', 2006학년도 9모 '만세전', 2014학년도 6모 B형 '만세전'

갈래 : 단편 소설, 세대 소설
 성격 : 사실적, 세대 비판적
 배경 : ① 시간 - 해방 직후 ② 공간 - 서울 황도현 부근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 : 1) 자연주의적 인생관과 사실주의적 창작 태도가 일관되어 흐르고 있다.
 2) 객관적인 표현양식
 3) 빠른 사건의 진행보다는 현실의 느린 전개
 경향 : 사실주의, 객관적 서술
 1) 염상섭이 즐겨 다루는 대상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으나 가난에 시달리는 중간 계층.(생존의 위협은 없음)
 2) 있는 자의 악의의 사람은 없는 자의 선의의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즉, 그들은 부정의 방법으로 돈을 소유해 도덕성을 버린 채 같은 계층의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배한다.)
 3) 한국사회가 철저한 배금주의로 인해 도덕을 내세우는 위선적 사회가 될 가능성 제시
 주제 : 해방 직후 혼란기에 물질적·정신적으로 파산한 인간의 모습 풍자

- 전체 줄거리
 - ① 발단 - 과거에 보통 학교 교장이었던 고리 대금업자가 정례 모친을 찾아와 그녀가 옥임에게 진 빚을 자신이 대신 받게 되었음을 알린다.
 - ② 전개 - 해방 직후, 정례 모친은 정치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를 위해 은행 빚을 얻어 문방구점을 차린다. 그런데 장사가 어려워지자 정례 모친은 친구인 옥임에게 빚을 얻어 가게를 운영하게 한다.
 - ③ 위기 - 정례 아버지의 자동차 사업이 실패하고 정례 모친의 가게도 실패하여 옥임에게 빌린 돈이 이자마저 못 갚는 지경에 이른다.
 - ④ 절정 -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정례 모친에게 옥임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망신을 주는데, 실상은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정례 모친을 부러워하고 질투를 느꼈기 때문에 정례 모친에게 망신을 준 것이다.
 - ⑤ 결말 - 정례 모친은 결국 가게를 처분하여 빚을 갚고 옥임의 성격 파탄을 한탄하지만, 그의 남편은 옥임으로부터 그 돈을 찾아 주겠다고 그녀를 위로한다.
- 인물 소개
 - ① 정례 어머니 : 초등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차려 놓고 생계를 유지하지만 여의치 않아 빚을 지고 결국 친구인 김옥임에게 가게를 넘긴다.
 - ② 김옥임 : 신교육을 받은 인물이지만 광복 후 고리 대금

- 업을 시작하면서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정신적 파탄자이다.
- ③ 정례 아버지 : 가난하면서도 되찾은 나라를 위해 정치 일선에 나서기도 한다. 옥임을 속여 집문서를 찾을 궁리를 한다.
 - ④ 교장 : 김옥임의 부탁으로 정례 어머니로부터 가게를 빼앗는 일을 도와주며 자신의 실속을 차리는 인물이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이 되자 정례 모친은 집문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빚을 얻어 내어 국민학교 앞에 문방구를 차리고 물건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옛날 동창생인 김옥임에게 빚을 얻어 가게를 운영한다. 남편의 자동차 사업이 실패하게 되어 옥임에게 진 빚의 이자마저도 갚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 되자 옥임은 교장을 하수인으로 내세워 빚을 받으려 한다. 어느 날 옥임은 길거리에서 정례 모친에게 심한 창피를 준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여덟살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찌네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 보았을까, 사십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 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 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사십이 훨씬 넘는 중늬은이로 보이랴. 머리를 곱게 지지고 젊은 얼굴 단장에, 번들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맥 유한 마담으로 알 것이지, 설마 일 할, 일 할 오 뿐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그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만,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불아귀같이 덤빈 것이다.

<중략>

팔구 삭 동안 장사를 하느라고 매일 들러 보면, 젊은 영감을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듯이 지성으로 고이는 풀이란 아닌 게 아니라 옆에

서 보기에도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만, 결혼들을 처음 했을 예전 시절이나, 도지사(道知事) 관사에 들어서 드날릴 때야 어디 존재나 있던 위인들이냐? 그것이 처지가 뒤바뀌어서 관 속에 한 발을 들여놓은 영감이나마 반민자로 지목이 가다니,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면 쪽쪽 뽑아 놓은 자식들과, 한참 활동적인 허우대 좋은 남편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기운차게 사는 양이 역시 부럽고, 저희만 잘 된다는 것에 시기도 나는 것이었다. 보기 좋게 이년 저년을 붙이 며 한바탕 해대고 나서 속이 후련한 것도 그러한 은연중의 시기였고, 공연한 자기 화풀이였는지 모른다.

옥임이는 그 길로 교장 영감 집에 들러서, “혼을 단단히 내주었으니까는 판소리 안 할 거외다. 내일 가서 표라도 받아다 주슈.” 하고 일러 놓았다.

“오늘은 아퀴를 지어주시렵니까?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인데 그결루 의 상황 거야 있나요?”

이튿날 교장이 슬쩍 들러서 매우 점잖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가 어떻게 들으실 줄 모르나, 김옥임이가 그렇게 되다니 불쌍해 못 견디겠어요. 예전에 셰익스피어의 원서를 끼구 다니구, 「인형의 집」에 신이 나구, 엘렌 케이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옥임이가, 동냥자루 같은 돈 전대를 차구 나서면 세상이 모두 돈뉘오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았는 나두 불쌍한 신세이지마는, 난 옥임이가 가 없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인가 보더군요…….”

정례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 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두 듣기에 좀 괴란쩍습니다마는*, 모두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 옛이 받아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 먹고, 등쳐 먹고, 알로 먹고, 꿩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허허허.”

하고,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옥임이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날 정례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며,

“그 따위 돈은 안 갚아도 좋으니, 정장을 하든 어찌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세요.” 하며 팔팔 뛰는 것을 모른 척하고, 이십만 원 표에 이만 원 현금을 엮어서 옥임이에게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정례 모친은 그 후 두 달 걸려서 교장 영감의 오만 원 돈은 갚았으나, 석 달째 가서는 이 상점 주인이 바뀌어 들고야 말았다. 정말 교장 영감의 조카가 나서는가 하였더니, 교장의 딸 내외가 들어앉았다. 상점을 내놓고 만 바에는 자질구레한 썸속을 따진 대야 죽은 아이 귀 만져 보가지 별수 없지만, 하여튼 이십만 원의 석 달 변리 육만 원이 또 늘어서 이십육 만 원인데, 정례 모녀가 사글세의 보증금 팔만 원마저 못 찾고 두 손 털고 나선 것을 보면, 그 팔만 원을 예끼고 남은 십팔만 원이 점방의 설비와 남은 물건값을 치른 것이었다. 물론 옥임이가 뒤에 앉아 맡은 것이나, 권리 값으로 오만 원 더 없어서 교장 영감에게 팔아넘긴 것이었다. 옥임이는 좀 더 남겨 먹었을 것이로되, 교장 영감이 그 돈 받아 내는 데에 공로 가 있었기 때문에 오만 원 없어 먹고 말았고, 또 교장은 이복에서 내려온 딸 내외에게는 꼭 알맞은 장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부터 침을 삼키고 눈독을 들이던 것이라, 이 상점을 손에 넣으려고 애도 썼지마는, 매득하였다고 좋아하였다.

정례 모녀는 일 년 반 동안이나 죽도록 별어서 죽 쭈어 개 좋은 일한 썸이라고 절통을 하였으나, 그보다도 정례 모친은 오래간만에 몸이 편해져서 그렇기도 하였겠으나, 몸살 감기에 율화가 터져서 그만 몸져누운 것이 반달이나 끝었다.

“마누라, 염려 말아요. 김옥임이 돈쫓 먹자고만 들면 삼사십만 원쫓 금시 녹여내지, 가만있어요.”

정례 부친은 앓는 마누라 옆에 앉아서 이렇게 위로하였다.

“옥임이 돈을 먹자는 것두 아니지만, 무슨 재주루?”

마누라는 말리는 것도 아니요, 부채질하는 것도 아닌 소리를 하였다.

“김옥임이도 요사이 자동차를 놀려 보구 싶어 한 다는데, 마침 어수룩한 자동차 한 대가 나섰단 말이 지. 조금만 참아요. 우리 집문서는 아무래두 김옥임 여사의 돈으로 찾아 놓고 말 것이니…….”

하며, 정례 부친은 앓는 아내를 위하여 뺏속 유하게 껄껄 웃었다.

어휘 풀이

*생화: 장사.

*아귀: 일을 마무리는 끝매듭.

*괴란쩍다: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운 느낌이 있다.

*정장: 소장(訴狀)을 관청에 냄.

*에끼고: 서로 주고받을 물건이나 일 따위를 비겨 없애고.

*매득: 물건을 싼값으로 삼.

1.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인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 ② 등장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 ③ 작품 속의 부수적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 ④ 묘사와 대화만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인물과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2. 이 글의 '정례 모친'과 '옥임'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임은 걸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며 살지만 정례 모친은 그렇지 않다.
- ② 옥임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 데 비해 정례 모친은 그렇지 않다.
- ③ 정례 모친은 옥임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데 반해 옥임은 정례 모친을 무시하고 있다.
- ④ 정례 모친은 자식들이 장성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옥임은 그렇지 않다.
- ⑤ 정례 모친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만 옥임은 인간적인 정을 나눌 가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3. <보기>는 박태원의 소설 <성탄제(聖誕祭)>의 일부이다. <보기>의 '순이'가 이글의 '옥임'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적당한 것은?

보기

순이는 우선 제 형 영이의 직업이 불쾌하여 견딜 수 없었다. 여집원이라든지, 여자 사무원이라든지, 그러한 것이야, 사실, 자기말마따나 워낙이 배운 것이 없으니까 될 수 없다고 하여 두자.

<중략>

하건만 어제 하필 고르디 골라 카페의 여급이 됐더란 말이나?

술 냄새 담배 연기 속에서 밤마다 바로 제 세상이나 만난 듯이 웃고, 재깁이고, 소리를 하고……, 못사 내들과 함께 어우러져 갖는 음란한 수작……, 어디 그 뿐이라? 이 사내 무릎에도 앉아 보고, 저 놈과 입도 맞추어 보고.

잠깐 생각만 하여 볼 뿐으로 순이가 더러워서 구역이 날, 그 여급이란 직업을 어떠한 생각으로 영이는 택하였던 것인지, 암만을 궁리하여 본됐자, 알아 낸다는 도리가 없었다.

- ①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당신의 선택은 최선의 방안입니다.
- ② 당신의 경제적 현실이 나아졌지만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온정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③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 하면 결코 자립할 수 없어요. 스스로 능력을 키워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 ④ 자신만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 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기 스스로에게 지켜야 할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버린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거예요.

4.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과장된 표현을 통해 독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작가가 전지적 입장에서 인물의 심리까지 분석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대화와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가치 평가가 돋보인다.

- ④ 문장의 길이가 대체로 짧은 간결체의 서술로 산뜻한 느낌을 준다.
- ⑤ 요약된 진술을 통하여 사건의 흐름을 매우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5. <보기>의 '발가벗은 아이들'과 이 글의 '교장'과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을 왔다갔다하며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나니라 이리 오면 사나니라 부르는 것이 발가숭이로다. 아마도 세상일 다 이런 것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① 돈과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
- ② 매사에 소극적·냉소적 행동을 일삼는 사람
- ③ 세상을 긍정하지만 물질적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인물
- ④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인물
- ⑤ 냉철한 이성으로 문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인물

6. <보기>는 이 글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소설 작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소설의 세계를 비교해 보거나 소설 속 등장 인물의 삶과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내 삶을 스스로 반성해 보곤 한다. 이 작품 역시 내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는데, □ □

- ① 물질적 파산과 정신적 파산에 처한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인생 설계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임을 알게 되었다.
- ② 친구 간의 우정과 체면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욕임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당연히 지켜야 할 근본적 예의마저 망각한 채 사는 것이 아닐까 반성하게 되었다.
- ③ 빚 때문에 문방구를 넘기고 몸져누운 아내에게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정신의 풍요로움이 중요하며 위로하는 정례 부친을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 ④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작품 속 교장의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 나 역시 내 지위와 역할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지 성찰해 보게 되었다.
- ⑤ 이 작품의 세계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점차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사라져 가는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우리 모두가 지나친 몰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7. <보기>와 관련지어 윗글의 제목인 '두 파산'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보기

이 글의 제목인 '두 파산'은 광복 직후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유형의 인간 문제를 보여 준다. 재산을 잃고 몰락하는 물질적 파산과, 돈으로 인해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는 정신적 파산이 바로 그것이다.

- ①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친구를 버리는 옥임과,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교장의 모습을 통해 인간 사회를 해치는 두 성격 파탄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일제 강점기의 파산 상황을 이겨 낸 정례 모친이, 광복 이후 혼란 속에서 다시 경제적 고통 속에 빠지는 모습을 통해 경제적 고통은 여전한함을 이야기한다.
- ③ 일제 강점기에 도지사의 아내로서 권세를 누렸던 옥임이 광복 후 파산했다가 고리대금업을 통해 재기했지만 인간성을 잃고 정신적으로 파산함을 의미한다.
- ④ 정례 모친이 친구에게 돈을 잃고 물질적으로 파산한 후, 생활의 궁핍으로 인해 정례 부친이 협잡꾼이 되어 정신적으로 파산하는 모습을 의미 한다.
- ⑤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빼앗기는 정례 모친의 물질적 파산과, 돈을 위해 친구마저 버리는 옥임의 정신적 파산을 통해 광복 이후의 혼란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그 돈은 갚는다는 거야 안 갚을 작정야? 세도 좋은 젊은 서방을 믿고 그 떠세¹⁾루 남의 돈을 무쪽같이 떼먹으려 드나 보다마는, 김옥임이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

원체 예쁘장한 상관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마는,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옥임이는 아니다. 전부터 “네 영감은 어제 점점 더 젊어가니? 거기다 대면 넌 어머니 같구나.” 하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옥임이는 은근히 부러워도 하는 눈치였지마는, 밀도 끌도 없이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추어내는 것을 보고 정례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늙은 영감에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얻으려무나.”

하고, 정례 모친도 비꼬아 주고 싶었으나 열을 지어 썼는 사람들이 쳐다보며 픽픽 웃는 바람에,

“**이거 미쳐나려나?** 이젠 무슨 객설야.”

하고, 달래며 나무라며 끌고 가려 하였다.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렴. 매달린 식술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 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쪼쪼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옥을 줌 단단히 배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썩 변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두 마다니, 남의 돈 생으루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구 뭐냐?”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대나?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난 말이야.”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로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구,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께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보려 들겠대던!”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피

어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려고 섰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옆의 골]로 줄달음질을 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옥임이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 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와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보았을까, 40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본 옥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랴.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덕 유한마담이지, 설마 1할, 1할 5푼으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²⁾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덤빈 것이다. 중경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³⁾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⁴⁾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칸이며 땅 섬지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술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옥을 털 먹는 발뺨이 되는 것이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쫓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결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샅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멍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멍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⁵⁾고 버르기는 하였지마는, ㉠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나 무어나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고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어휘 풀이] 1) 떠세 : 재물이나 세력 따위를 내세워 전제하고 억지를 쓰는 짓. 2) 생화 : 먹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벌이나 직업. 3) 취체역 : 주식회사의 '이사'의 옛날 말. 4) 반민법 :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해방 직후에 만든 특별법. 5) 제독을 주다 : 기운을 꺾어 다시 꿈쩍 못하게 하다.

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바꾸어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9. ㉠ ~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임'은 ㉠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계속해서 '정례 모친'을 비난했다.
- ② '정례 모친'은 '옥임'을 달래 ㉢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 ③ '정례 모친'은 구경꾼들의 시선과 '옥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로 향했다.
- ④ ㉠에서 표현하지 못한 '정례 모친'의 속내가 ㉢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있다.
- ⑤ '옥임'은 ㉣로 향하면서 ㉠에서 '정례 모친'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10. <보기>를 통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파산」은 금전적인 이해에 의해 어긋나게 되는 두 여인의 삶을 통해 정신적 파산과 경제적 파산이라는 두 가지 양상의 파산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작가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이들의 파산을 초래한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사회상에 독자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①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이나 친구로 지내던 정례 모친에게 '우정은 다 뭐냐?'라고 하는 옥임의 말에서, 둘의 관계가 금전적 이해에 의해 어긋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한때 '신여성 운동'에 참여하기까지 했던 옥임이 현재는 정례 모친에게 빚을 갚으라며 '난 돈밖에 몰라'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정신적 파산의 양상이 드러난다.
- ③ 옥임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정례 모친이 오히려 옥임에게 '이거 미쳐나러나?'라면서 나무라는 모습에서, 경제적 파산이 정신적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옥임을 한때 '도지사 대감의 실내마님'이었다가 재산을 '몰수를 당할' 처지로 설정한 것에서, 옥임의 파산이 해방 직후의 시대 현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상황을 틈타 친일파의 아내였던 옥임이 고리대금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11.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에도 티가 있다'더니 정례 모친의 삶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군.
- ② '목구멍이 포도청'인데도 옥임은 한가하게 남의 걱정이나 하고 있군.
- ③ '제 눈에 물대기'라더니 옥임은 남의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군.
- ④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더니 옥임은 그동안 정례 모친에게 하려고 준비해 왔던 말을 실컷 한 것이군.
-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집안의 일로 짜증이 난 옥임이 정례 모친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군.